

‘KREI리포터’ 전북지회 간담회 결과

1. 개 요

- 목 적: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
- 일 시: 2017년 12월 15일(금) 11:30~15:00
- 장 소: 연가(전북 전주시)
- 참 석: 총 11명
 - 전북지회 리포터(9명): 강병준, 권승룡, 김인기, 박광양, 박향숙, 심요섭, 윤선웅, 임장섭, 임장욱
 - 연구원 관계자(2명): 송성환 조사동향팀장, 김미리 주무원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1:30~12:00	등록	
12:00~12:30	회원소개 및 인사	
12:30~13:30	점심식사	연가
13:30~15:00	간담회	전북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

2. 주요 논의 내용

- 회원 소개 및 인사
 - 강병준: 전북 순창에서 벼농사와 한우 축사를 하고 있음. 한우는 200두 정도 규모이며, 면단위 축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음.
 - 권승룡: 전북 남원에서 30년째 유기농 축산업을 하고 있음. 한우는 150두를 키우고 있고, 벼는 4만 평으로 벼를 이용해 사료를 주고 축분을 이용해 벼 거름을 쓰는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있음.
 - 김인기: 전북 장수에서 10년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음. 비닐온실은 2천 평, 유리온실 4천 평 규모임.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었음.

- 박광양: 야생화를 재배하다가 현재는 김제시 용지 농협조합장을 하고 있음. 리포터 1기부터 활동하여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자 리포터로 계속 활동중임.
- 박향숙: 전주시에 있으며 약초를 재배하고 약선 요리로 방송에도 출연하며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음. 지난 1기에 전북지회 총무로 활동하였음.
- 심요섭: 전북 임실에 귀농해 쌈채소를 농사 짓다가 우연한 기회에 젓소 컨설팅을 배우고, 현재는 치즈 및 요구르트 유가공품을 제조하고 있음. 산양을 키워 산양유를 첨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. 그리고 1기부터 계속 전북지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는데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
- 윤선웅: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며 유기농 벼, 패션후르츠를 재배하고 있음. 귀농 10년차가 되며 현재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재학중임.
- 입장섭: 전북 부안군에서 부안마케팅조합을 운영하고 있음. 수박, 양파, 과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박은 전국 생산량 5%를 취급할 만큼 꽤 큰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음. '바뜨랑'이란 브랜드를 만들어 도지사 인증상을 수여하고, 최근까지 직원 30명, 농업인 60명과 함께 일하고 있음.
- 입장욱: 농협에서 20년 간 근무하다 94년부터 감식초 생산을 시작해 최초의 감식초명인 1호로 지정되었음. 현미식초, 호박고구마 등은 2,500여 개 유기농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, 취미로 시작한 서예로 최근에는 서예가로도 활동하고 있음.

○ 전북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렴

- 윤선웅: 후계농 양성에 어려움이 많음. 농협에서 영농자금 대출 시 담보를 요구하는데, 보통 승계농의 경우는 물려받을 농지를 담보로 하나, 신규농의 경우 담보가 없어 영농자금 대출이 어려움. 그리고 영농자금 대출금리가 1%로, 저금리인 것은 좋으나 사실 농업대학의 프로

그램이나 각종 혜택에 비교하면 후계농 양성을 위해선 이자 없는 영농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임.

- 심요섭: 자녀가 농업대학을 다니고 있어 후계를 준비 중인데, 땅을 사야만 후계농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함. 살 수 있는 좋은 농지도 없을 뿐더러 그 좋은 땅은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다 시설을 세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.
- 입장섭: 태양광 사업 때문에 농촌의 땅값이 치솟는 것은 문제임. 제재가 필요함.
- 권승룡: 임야만 해도 평당 2~3만원 하던 곳이 6~7만원으로 올랐음. 실제 농업에서 대안을 찾으려면 인력 투입이 가장 시급할 것임.
- 입장섭: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농촌에 어려움이 많음. 농삿일이란 것이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, 새벽근무 시 특근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추석 같이 바쁜 철에도 또 특근수당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함. 게다가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까다로워지는 것이 많음. 농업 근로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예외 되어야 마땅함.
- 김인기: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실정임. 하지만 외국인 고용주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음.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예정지를 지정해두고 그 외에 데리고 나가 일하면 불법이 되어 지정된 한 곳에서만 일을 시키고 건너 밭에 가서 일을 시킨다하면 불법에 노출되는 것임. 농업에서 이런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
○ 전북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

- 전북지회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 회원 의견 수렴 결과, 분기별 4회 원칙대로 간담회를 개최기로 하였으며, 다음 2018년 1분기 간담회는 3월 경 부안군 입장섭 회원님 농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.
- 회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일정을 공지하고, 간담회

에서 분기별 주제를 주어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줌. 명예회원도 참석해 전북지회에서 회원 간 네트워크도 만들고, 많은 의견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추후 간담회부터는 전 회원을 초청하는 것으로 결정함.

3. 이모저모

